



세계 PDA 시장 지각 변동

세계 PDA 시장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1위 업체인 팜이 흔들리고 리서치인모션(RIM)·노키아 등 통신기술을 갖춘 PDA업체들이 떠오르고 있다. 운영체계 분야의 경우도 윈도의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팜OS는 하락세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발표한 지난 1분기 세계 PDA 현황에 따르면 RIM이 팜을 물리치고 업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1위 자리를 지켜온 팜원은 2위로 떨어졌다.

OS분야에선 윈도CE가 전체시장의 46%를 차지했고 팜OS는 20%에 그쳤다. 1년 전만 해도 윈도CE 점유율은 40.2%, 팜OS가 40.9%였다.

RIM은 OS 분야에서도 1년전보다 75.6%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팜OS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리눅스는 1년 전보다 보급률이 21.6% 감소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며 부진을 보였다.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세계 개인휴대단말기(PDA) 판매량은 전년동기보다 25% 늘어난 340만대이고, 휴대 폰과 무선 기능을 갖춘 PDA가 늘어나면서 평균 판매가격도 지난 2000년 이래 최고치인 406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2007년 초고속 통신 시장에서 세계 1위

중국이 오는 2007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초고속 통신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2005년 말 미국 초고속 통신망 사용인구는 3,900만명으로 중국의 3,400만명보다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유지하겠지만 2007년에는 전세가 역전된다는 것. 중국의 초고속 통신 사용자는 2007년에 5,700만명을 기록하며 5,400만명의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대비 보급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예상 가입자 수 5,700만명을 전체 인구로 나눈 보급률은 5%도 채 안된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빠른 상하이나 베이징의 경우 10%를 넘고 2007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전국의 다른 도시들이 상하이나 베이징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전체 보급률은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리얼ID법 통과

새로운 전자ID카드의 도입을 명문화한 '리얼ID법(The Real ID Act)'의 시행을 놓고 미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 미 하원은 82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자금 지원 법안과 함께 새로운 운전면허카드의 도입을 명문화한 리얼ID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3년 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리얼ID법은 교통 당국이 운전면허증 발급시 생년월일·주소·사회보장번호·디지털 사진 등 각종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요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ID카드가 각종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AP, 올해 북미 시장에서 선두 차지

유럽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가 올해 북미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됐다. C넷에 따르면 SAP는 올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오라클의 시장 점유율은 19%에 그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SAP는 북미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실적을 보면 SAP의 매출 기반이 유럽에서 북미쪽으로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 반면 피플소프트를 인수한 오라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예상된다.

지난해 북미 지역은 오라클과 피플소프트가 개별회사로 있을 때는 SAP보다 매출 규모가 큰데 비해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병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DC, 올 세계 휴대폰 시장 10% 성장 전망

올해 세계 휴대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7억6천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IDC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휴대폰 출하량은 구형 모델에 대한 교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 속도는 올해를 기점으로 한풀 꺾일 전망이다. IDC는 오는 2009년까지 전세계 휴대폰 출하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5%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IDC에 따르면 게임 접속이나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폰이 향후 몇 년간 대체 수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3세대 네트워크 확산으로 데이터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폰들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IDC는 전했다.

세계 메모리카드 시장, 2010년 2조5,000억엔 규모

세계 메모리카드 시장 규모가 오는 2010년에 2조5,000억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의 시장조사업체인 시드플래닝은 최근 발표한 '2005년 메모리카드 및 탑재기기 세계시장과 장래 전망'에서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 등 데이터 보존용에 쓰이는 메모리카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드플래닝은 2004년 메모리카드 시장규모는 총 2억5,000만장, 금액으로는 6,500억엔이었고, 2010년에는 약 13억장에 2조5,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시장을 보면 일본 1억 5,000만장, 북미 4억4,000만장, 유럽 3억8,000만장, 기타지역이 3억 5,000만장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품 가운데 콤팩트플래시와 스마트미디어 시장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 SD메모리는 2004년에 매수로 약 32%를 차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6억2,000만장으로 늘어 전체시장의 4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SD메모리에 이어 USB메모리가 3억6,000만장, 메모리스틱이 2억4,000만장 등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메모리카드 수요는 탑재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메모리카드 탑재기기는 디지털카메라용이 2002년에 약 65%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4년에는 14%로 감소해 디지털카메라의 시장 포화 상태를 반영했다. 휴대폰용은 2002년에 약 5%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52%로 급증했다. 향후 메모리카드 시장은 가격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3G 통신설비 수출 본격화

일본 전자업체가 3G 통신설비의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NEC, 후지쯔, 마쓰시타전기산업 등 전자업체들은 해외 기업 등과 제휴해 기지국 등 3G 휴대폰용 통신설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NEC가 설비 납품 및 운용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고 후지쯔와 마쓰시타도 알카텔, UT스타콤 등과 기지국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3사는 앞으로 3G 휴대폰 보급이 본격화되면 기지국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개발과 영업 체제를 확충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휴대폰업체들은 독자적인 통신규격인 'PDC'를 채택해 해외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일본은 3G 휴대폰 서비스에 앞서 있고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기지국 장비 등에서 일본 제품의 비중이 높아 성공가능성이 있다.

NEC의 경우 최근 '모바일서비스 사업추진본부'를 설립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해 기지국 관련 서비스를 일괄 수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특히 현재 독일의 지멘스와 제휴해 3G용 기지국 개발과 해외 영업에 나서고 있다. 향후 전체 매출에서 통신 서비스 부문 비율을 약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후지쯔는 프랑스의 알카텔과 공동출자한 회사를 통해 해외 사업자용 3G용 기지국을 개발해 공급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알카텔 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해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지역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하고 있다. 마쓰시타전기 계열 파나소닉모바일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통신기기업체인 UT스타콤과 제휴해 중국 항저우시에서 기지국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고 2006년 이후 중국과 유럽에 판매할 계획이다.

영국, 오픈소스 SW 도입 가속화

최근 재집권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조만간 오픈소스 SW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9일 보도했다. FT 조사 결과 영국 지방 자치단체의 60% 이상이 오픈소스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공공 부문은 2003~2004년에 IT분야에 124억파운드(235억 달러)를 지출했고 향후 3년 동안 공공기관의 4분의 3 이상이 오픈소스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